

자동차업계 노조 '임단협' 대조된 행보

쌍용, 임금반납 '상생' vs 기아, 파업권 획득 '가시밭길'

쌍용차, 9년 연속 무분규 타결
임원단 자율적 임금 10% 반납

기아차노조 '파업추진' 가결
르노삼성, 단일 호봉제 등 대립

쌍용자동차 노사가 9년 연속 무분규로 임금 및 단체 협약(임단협)을 타결한 가운데 기아자동차와 르노삼성자동차 등 다른 완성차 업체도 노사간 협상을 이룰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지난 9일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50.1%의 찬성률로 2018년 협상을 최종 타결한데 이어 임원단의 자율적 임금 10% 반납도 성사했다.

쌍용차 노사는 이번 협상이 회사의 미

래 비전을 확고하게 세우는 임단협이 되어야 하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회사의 생존과 고용안정에 초점을 맞춰 합의를 이뤄냈다.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노사가 현재 어려움을 공유하고 결단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완성차 업체는 현대차와 한국지엠, 쌍용차가 올해 임단협을 타결하고 노사간 협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나섰다.

반면 현대차와 같은 그룹사인 기아차는 그동안 관례적으로 현대차 임단협 사례를 따라갔지만 올해는 난항을 겪고 있다. 기아차는 임금체제 개편을 올해 임단협에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예년과 달리 접점을 쉽게 찾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기아차 노조는 지난달 24~25일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72.7% 찬성률로 파업추진을 가결했다. 이후 26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중지 결정을 받으며, 합법적인 파업권을 획득한 상태다. 이를 통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상태로, 쟁의대책위원회에서 파업 실행 여부와 시기 등을 결정하면 바로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이달 초 여름휴가를 다녀오면서 임단협에 대한 노사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여름휴가 이후 교섭을 진행해 노사간 의견 좁히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임단협을 둘러싸고 지난 2016년과 2017년 파업을 단행했던 한국지엠은 이미 지난 4월 올해 임단협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본 상황이다. 한국지엠의 경우 군산공장 잔여인력의 전환배치 문제와 비정규직 직접고용 문제를 제외하면 파업 쟁의를 부를 큰 논란은 없는 상태다.

르노삼성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무분규로 임단협을 타결했지만 지난해 노조가 부분파업 직전까지 가는 등 위기를 겪은 바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노조는 올해 사측에 임금인상에 이어 임금피크제 상향과 단일 호봉제 재도입 문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르노삼성 노조가 지난 2012~2013년 회사 경영이 극도로 어려워지자 임금을 동결한 만큼 올해 전반적인 위기감이 커지고 있어 임단협 타결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기아차 양재동 사옥.



폭염으로 인한 수확 감소와 휴가철 수요 증가로 수박가격이 급등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8월 현재 수박 1통 평균 소매가격은 2만6천422원으로 지난달 1만6천577원보다 57.1%, 지난해 8월 1만9천213원에 비해 35.5%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폭염 장기화에 치솟는 밥상물가 추석 앞두고 농수산물 가격 비상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시금치 50%·열무 42% 상승
민어 등 수산물 가격도 올라

사상 최악의 폭염과 가뭄이 겹치면서 농산물에 이어 수산물까지 밥상물가가 치솟고 있다.

기록적인 폭염에 농·수산물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추석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통계청의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배추 무 등의 농산물 가격이 일제히 오르면서 채소류는 전월보다 3.7%, 농축산물은 1.3% 각각 상승했다. 특히 시금치(50.1%), 열무(42.1%), 배추(39.0%), 상추(24.5%) 등은 한 달 새 가격이 경종 뛰었다. 고온에 약한 가축들의 폐사가 속출하면서 축산물 가격도 한 달 전보다 3.3% 올랐다.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각각 7.8%, 2.7% 뛰었다.

이달에도 폭염이 이어지면서 농산물 가격 상승 흐름은 이달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이상 고온으로 고랭지 배추 출하량의 90%를 차지하는 강원도 주요 생산지의 생산량도 3.4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경제연구원은 12일 "폭염과 가뭄에 취약한 배추와 무는 지난달부터 작황이 악화되고 출하가 지연돼 가격이 상승했다"며 "당분간 고온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배추와 무 가격은 강세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제철 과일 가격도 고공행진 중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한국 농수산물 공사가 집계한 농산물 가격 현황을 보면 이달 수박 1통 평균 소매가격은 2만6000여원으로 7월보다 60% 가까이 올랐다. 참외 10개 기준 평균 가격도 1만6000여 원으로 한 달 전보다 26% 상승했다. 추석 차례상에 올라가는 사과가 14%, 배는 20% 정도 생산량이 감소해, 9월 추석 대목에는 과일 값이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산 주요 수산물 가격도 오르고 있다. 수협노량진수산물에 따르면 8월 첫째 주(7월 30일~8월 4일) 노량진수산물시장에 입하된 평균 경락가는 민어 자연산 1kg이 4만7000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지난해 평균보다 40% 비쌌다. 참돔 자연산 1kg은 2만32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및 지난해 평균보다 50% 비쌌다.

농어 자연산 1kg은 1만93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지난해 평균보다 40% 올랐다. 고등어 1kg은 17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지난해 평균보다 10% 인상됐다. 오징어 1kg은 34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지난해 평균보다 10% 올랐으며, 갈치 1kg은 1만9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지난해 평균보다 10% 가격이 상승했다. 자연산 광어 1kg은 1만6200원으로, 지난해 평균보다 30% 올랐다.

수입산이 포함된 연어와 킹크랩, 대게나 지난 1년간 값이 폭락한 전복, 그리고 일부 조개류를 제외하면 사실상 주요 어류 전 품목의 가격이 급등한 것이다.

"수입차 피해구제 신청, 국산차의 3.6배"

소비자원
5년간 수입차 불만 신청 55% 급증
달러 체제로 운영... AS 관리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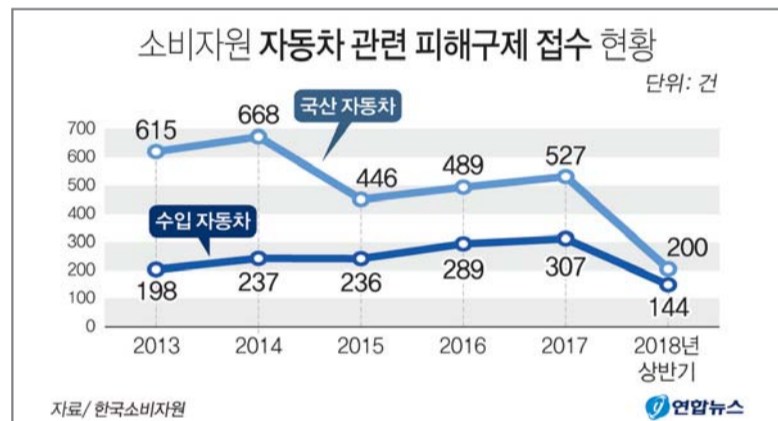
국산차보다 수입차에 대한 불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BMW 연쇄 화재사고 등 수입자동차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최근 5년간 수입자동차 피해구제 신청이 50%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점유율을 고려한 지난해 피해구제 신청비율은 수입차가 국산차의 3.6배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2013~2017년)간 품질이나 안전 등 문제로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수가 국산 자동차는 감소했으나 수입자동차는 50% 넘게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국산 자동차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2013년 615건에서 지난해 527건으로 5년간 88건(14.3%) 줄었다. 같은 기간 수입자동차 피해구제 건수는 198건에서 307건으로 109건(55.1%) 늘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 등에 따르면 트



럭·버스를 제외한 승용차 시장에서 지난해 수입차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13.8%였다. 국산 5개사(현대·기아·한국GM·르노삼성·쌍용)는 86.2%였다. 지난해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고려했을 때 수입자동차 피해구제 신청비율은 국산 자동차의 3.6배가량 된다.

올해 상반기까지 수입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44건이었다. 이는 국산차(200건)의 4분의 3에 달하는 수치다.

소비자원 측은 국산차의 경우 완성차 업체가 전면에 나서 자동차 품질 문제 등

을 직접 관리하지만, 수입차 업체들은 달러 체제라서 품질이나 애프터서비스(A/S) 관리에 한계가 있어서 매년 피해구제 신청이 증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년간 수입자동차 피해구제 신청 총 1267건 가운데 품질 불만이나 수리용 부품이 없는 등 AS 문제가 988건(78.0%)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가장 컸다. 이어 계약 불이행 등 계약 관련 사항(167건, 13.2%), 부당행위(46건, 3.6%), 제품안전 등 안전 문제(27건, 2.1%) 순으로 많았다.

/박민용 기자 parku7854@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상승 여전

>> 1면 '규제 반작용?'...서 계속

◆ 1라운드는 敗...2라운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역대 최고 강도로 꼽히는 '8·2 부동산 대책'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오히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치솟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8·2 대책을 통해 서울 모든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세종시를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이중 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와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값은 8·2 대책 발표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탔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11개월간 6.60% 올랐다. 대책 이전 1년 상승률(4.74%)보다 높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 1면 '한화 5년간 22조...'서 계속

금융 부문에서는 시장 환경을 고려해 별도로 투자 계획을 추가로 확정할 예정이다.

투자과열지구 또는 투기지역의 추가 지정 가능성도 열렸다. 기획재정부와 국토부는 이달 안에 부동산가격안정심의 위원회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검토한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아직까지 추가 규제에 대해 현장에선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분위기로, 아파트값 오름세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라며 "당분간 실수요 중심의 거래가 다소 어질 전망이나 거래량이 크게 회복되지 않는다면 확실한 추세 전환을 예단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한화그룹은 이번 투자·고용 계획을 통해 올해 70조원 수준의 매출 규모가 오는 2023년에는 100조원에 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